

내년도 수시접수 내달 7일 시작… “공통원서 미리 챙겨야”

4년제 대학별 3일 이상 접수 마감 직전 접속 몰려 오류 우려
통합회원 가입·공통원서 사전 작성
대교협, 내달 5일까지 집중상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접수 마감 직전 지원자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지연에 대비해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년제 대학의 경우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은 수시 1차 모집을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차 모집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수험생은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



지난 7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

면 해당 대행사를 이용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공통원서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환불 계좌,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한 번 작성한 원서는 여러 대학 지원 때 활용할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다. 대교협은 특히 원서접

수에 사용할 PC에서 접수 대행사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마감 시간에 접속자가 몰릴 경우 원서 작성이나 결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2005년 2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고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학생부 자료를 생성·신청해야 한다. 수시모집 신청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대교협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2027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과 전년도 입시결과, 성적산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기반 대입 챗봇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대입상담도 확대한다. 대입상담센터는 다음 달 5일까지 집중상담을 실시하며 전화상담은 평일과 토요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현직 고교 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이 대학별 전형정보와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토대로 상담을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lhi@metroseoul.co.kr



metro

고양시

청년과 행정 잇는 ‘서포터즈’ 출범

고양시가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 청년정책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청년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고양시는 '2026 내일꿈제작소 청년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청년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 고양시가 추진하는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으며, 모집과정에서 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한다. 내일꿈제작소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주요 행사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한편, 청년들의 관심사와 수요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16개 시도교육감, 교부금 개편 반발… 교육부 회의 보이콧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촉구
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요구
개편안 원점 재논의 촉구하며 공동대응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첫 대응 조치로 오늘(25일) 예정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 불참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수요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 비용은 지속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돌봄·안전, 학생 마음건강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학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교육감

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 집단행동으로는 이날 예정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이번 보이콧은 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남양주시

교황 마제성지 방문 추진

최현덕 시장 바티칸서 친서 전달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WYD)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세의 남양주 '마제성지' 사목 방문 성사를 위해 바티칸을 찾았다. 남양주시는 24일(현지 시간) 최현덕 시장과 김용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바티칸에서 교황청 성직자부장관 유홍식 추기경을 예방하고, 교황의 남양주 마제성지 사목 방문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성가정(聖家庭) 순교 성지'로 알려진 마제성지의 역사·종교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순례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마제성지는 한국 천주교 초기 평신도들이 학문 탐구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는 역사와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647만명 찾은 '차 없는 잠수교' 마지막 축제

내달 6일 마지막 시즌 개막
10월 25일까지 매주 운영

누적 방문객 647만명을 기록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열린다. 내년 하반기 잠수교 전면 보행화를 앞두고 현재 형태로 열리는 마지막 시즌이다.

서울시는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

지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축제는 2022년 하반기 시작했다. 방문객은 2022년 52만명, 2023년 200만명, 2024년 150만명, 2025년 128만명, 올해 상반기 117만명으로 누적 647만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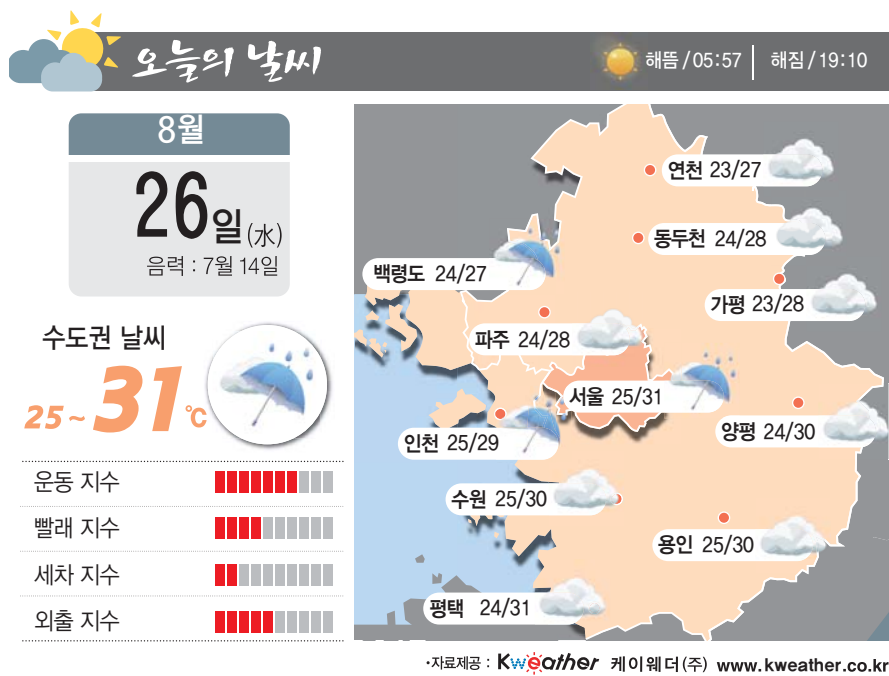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매주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 6일에는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총 800명이 참여하는 물총놀이 '잠수교 워터워즈'가 열린다. 13일에

는 대학생 동아리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20일에는 줄다리기와 훌라후프 등을 포함한 가을 운동회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러시아, 파나마, 카자흐스탄 등 6개국의 전통 공연과 율놀이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0월 4일에는 잠수교 남단부터 북단까지 10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잠수교 미식로드'를 운영한다. 한국과 미국, 베트남,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하며 동시에 최대 8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취식 공간도 마련한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망명 신청자 상용·관광비자 20만건까지 축소 추진 /사진 뉴시스
▲AI주 하락에 무너진 24세의 헤지펀드…美 SEC 조사 착수

▲머스크 “내년 4분기 AI 위성 첫 발사… 2028년엔 상당한 규모”
▲“아이 낳으면 7600만원” 출산율 0.87 사상 최저, ‘초강수’ 꺼낸 싱가포르

▲네타냐후, 美의 이란 경제제재 환영… “잔혹한 정권, 대가 치러야”
▲“집권하면 유로존·생권협정 탈퇴”… ‘지지율 1위’ 독일 우파 정당 폭탄선언